



미 증시, 연준 긴축 불안 등으로 2 거래일 동안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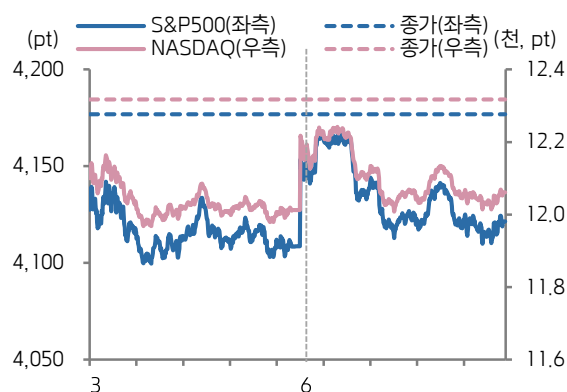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국내 휴장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감 상존에도, 테슬라(직원 10% 감축), 애플(미국 제외 매출 부진 우려) 등 개별 악재 발 주요 테크주 약세 속 5 월 고용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긴축 정당화, 10 년물 금리 재등등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2 거래일 누적 등락률, 다우 -1.0%, S&P500 -1.3%, 나스닥 -2.1%)

3 일(금) 미국 증시는 미국 5 월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의 긴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며 3 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 (다우 -1.05%, S&P500 -1.63%, 나스닥 -2.47%) 미국 5 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39 만명 증가(예상치 32 만 8,000 명, 전월치 43 만 6,000 명)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함.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 증가한 수준. 경기 둔화 우려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연준의 긴축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확산.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지시간 3 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9 월 FOMC 에서 0.5bp 인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테슬라 CEO 인 일론 머스크가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인력을 10% 감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 소비 둔화 우려로 마이크론의 투자의견이 하향된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며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들 낙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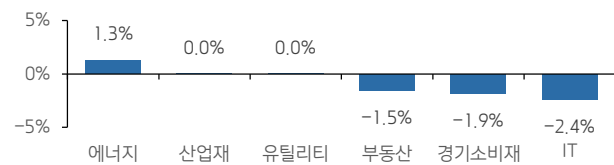
7 일(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1% 넘는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금리 상승 부담, 인플레이 경계심리 확산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해 채로 마감(다우 +0.05%, S&P500 +0.31%, 나스닥 +0.40%) 5 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치 8.2% YOY, 전월치 8.3% YOY)의 상승세가 주춤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뉴욕에 상장된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종료할 것이라는 소식과 미 상무장관이 대중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한 소식이 전해지며 디디글로브(+24.3%), 알리바바(+6.22%) 등 중국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임. 미 10 년물금리가 3%를 상회하고, 사우디가 7 월 원유 판매가격을 인상하자 유가가 장중 120 달러를 돌파한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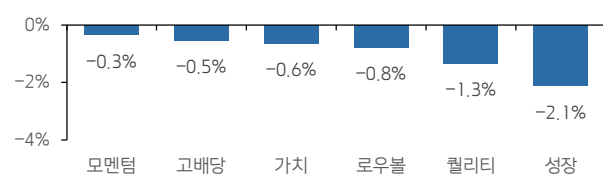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21.43	-1.33%	USD/KRW	1,253.86	+0.14%
NASDAQ	12,061.37	-2.07%	달러 지수	102.40	+0.57%
다우	32,915.78	-1%	EUR/USD	1.07	-0.22%
VIX	25.07	+1.42%	USD/CNH	6.66	+0%
러셀 2000	1,889.89	-0.41%	USD/JPY	131.94	+0.81%
필라. 반도체	3,062.74	-3.0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554.61	+0.44%	국고채 3년	3.125	+9.4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407	+7.7bp
Eurostoxx50	3,838.42	+1.14%	미국 국채 2년	2.726	+9.7bp
MSCI 전세계 지수	652.13	-0.66%	미국 국채 10년	3.040	+13.2bp
MSCI DM 지수	2,789.83	-0.8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71.33	+0.93%	WTI	118.5	+1.39%
MSCI 한국 ETF	66.89	-2.49%	금	1843.7	-1.4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0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54.3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국내 휴장 기간 동안의 미국 증시 약세로 인한 하락 출발 가능성
2. 장중 미국 10 년물 금리 및 중국 증시의 움직임
3.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전거래일 대비 12 원 상승 전망)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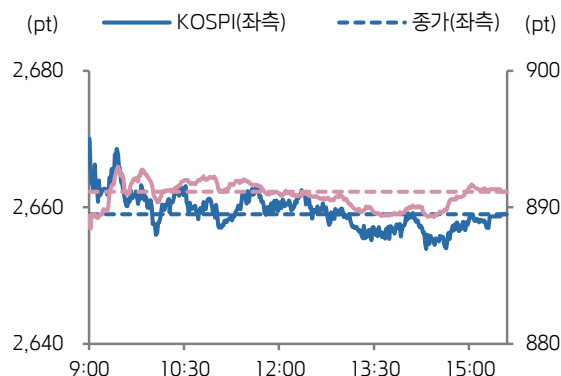
중국의 봉쇄조치 해제 및 경기 부양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9월 혹은 11월 중간선거 전 금리 인상 중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5월 소비자물가 예상 8.2%YoY, 4월 8.3%), 3일(금) 발표된 5월 고용지표 또한 연준의 긴축 기초 정당화를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보임.

여타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고용시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농업부문 신규고용(39.0 만건, 예상 32.5 만건), 실업률(3.6%, 예상 3.5%), 시간당평균임금(5.2%YoY, 예상 5.2%) 등 5월 세부 항목들이 예상보다 견조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3분기말 혹은 4분기 이후 연준이 물가 대응이 아닌 성장 둔화에 재차 초점을 맞추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6월 회의를 포함한 향후 2~3 차례 FOMC 에서 50bp 금리인상 단행 기초는 유효. 결국 당분간은 고용이 아닌 인플레이션 방향성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변화, 침체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 시 금일 국내 증시도 휴장기간 동안의 주요국 증시 약세, 달러화 강세 부담을 소화하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장중 상승폭을 축소했던 배경이 3%대로 재진입한 10년물 금리 상승 부담에서 기인했던 만큼, 국내 증시도 장중 미국 금리 변화에 영향 받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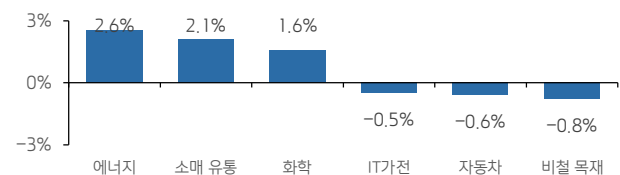
또한 애플과 마이크론이 지난 2거래일 동안 IT 기기 수요 부진 우려 확대로 취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최근 양호한 수출 모멘텀 등으로 개선되고 있었던 국내 관련 업종 및 밸류체인주들의 투자심리 호전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 이처럼 금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세 우위의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이나, 플랫폼 규제 완화, 봉쇄조치 해제, 미국 관세 인하 가능성(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 포함) 등으로 중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줄 요인이 될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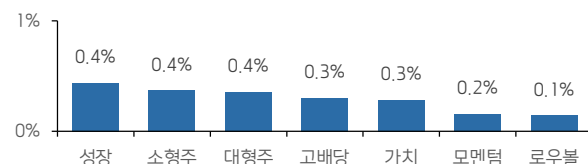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